



소통과 신뢰! 조합원과 함께하는 경주지부!

# 경주지부 14기 03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1.16(금)

## 원청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신년 결의대회



2026년 1월14일(수) 14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신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비롯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 등이 참가했다.

결의대회는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의 대회사로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은 친노동을 내세우지만 노조법 2·3조 시행령으로 노동 3권, 특히 파업권을 제한하려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30년 투쟁의 역사 속에서 정

권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의 헌법에 적시된 노동 3권 완전 보장을 위해 싸워왔기에 2026년에도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대회를 이어간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조합원 중심 투쟁에 머물며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이를 틈타 정부는 노조법 2·3조를 후퇴시키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하청 노동자를 위한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국민적 지지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민주노총은 이후 투쟁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투쟁사로 함께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노조법 2·3조의 취지와 달리 시행령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맞서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에 기대기보다 노동조합의 존중과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 2026년 힘찬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라며 26년 경주지부의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이어진 투쟁사에서 손영숙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장, 신경자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 본부장, 류동열 공무원노조 경북본부장은 각각 공무직위원회법 통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 먹튀저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이야기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류동열 공무원노조 경북본부장은 공무원 노조법의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정치기본권 보장요구를 위한 향후 투쟁방향을 발언하며, 이후의 투쟁이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결의대회 요구

-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원청교섭을 보장하라!
- 강제적인 창구단일화를 철폐하고 자유롭게 보장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무직위원회법 즉각 통과하라!
-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 돌봄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라!
- 특수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기법을 개정하라!

이번 결의대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간접고용과 원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안정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때문에, 원청교섭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권리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앞으로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현장에서 서부터 다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앞으로의 투쟁에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